

한 소녀를 만났다. 열여섯 살, 어머니와 함께 앉아 베갯모에 수를 놓던 그 소녀는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세월을 잊었다. 목단이며 새가 손끝에서 피어나고, 바늘 끝에서 불보살이 나무는 환희심에 밤낮을 잊은 채 수를 놓았으니 세월의 흐름인들 염두에 두었을까.

그러나 세월은 흘러 그 소녀는 이제 칠순이 되어 있다. 9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刺繡匠)으로 지정된 최유현(70) 씨. 부산 급정구 부곡동 공방에서 만난 최유현 씨는 열여섯 소녀처럼 해맑게 웃고 있다.

50년이 훌쩍 넘어선 자수 인생을 거슬러 보면 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수를 앞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수를 놓는 즐거움이었다. 금방 결과가 나오거나 이름을 알리는 일에 마음을 뺏겨 많은 이들이 자수를 떠나갈 때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자리를 지켰다. 실과 바늘 끝에서 완성되는 작품들이 밤 없는 시간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실과 바늘을 놓을 수 없게 마음을 붙들었다.

어머니에게 자수를 배울 때만 해도 여염집 처녀라면 베갯모와 보자기 등을 혼수품 일호로 해가던 시절이었다. 밥을 먹는 일처럼 생활의 일부였던 자수가 본업이 된 것은 권수산 선생을 만나면서부터다. 목포에서 태어났지만 권 선생을 따라 부산으로 내려와 중, 고등학교에서 자수를 가르쳤다.

63년 교직을 그만두고 자수 학원을 시작했다. 부산에서 학원 62호 인가를 받았으니 어지간히 앞선 일이었다. 누가 돈을 주고 자수를 배우겠느냐고 주위의 반대에 만만찮았다. 그러나 학원은 3부제로 나눠 수업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고, 곧바로 그해 작품 발표회를 가졌을 정도였다.

밤낮을 잊고 작품에만 매달려 부산시립문화원 1, 2층에서 작품 70여 점을 선보였다. 자수에서 색을 없애고 수묵화처럼 명암만으로 처리한 독특한 기법과 아이디어가 전국 자수인들의 발걸음을 부산으로 끌어 모았고, '최유현 밀그림' 모사본이 돌아 말쑥이 생길 정도였다.

최 자수장은 대부분 기계로 하고 있는 자수 실 피기를 아직도 손으로 고집하고 있고 최 씨의 문화생이 되면 실 피는 일을 반년 정도 배워야 하는 등 지도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그렇다 보니 한 두 작품이 끝나면 그만 두는 이가 태반이다.

그러나 바늘 잡는 법, 수놓는 자세 등 기본이 돼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에 엄격한 기준은 쉬이 무너지지 않을 모른다.

이처럼 기본을 중시하는 것과 함께 '자수장 최유현 하면 불화를 소재로 대작을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88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을 때까지 첫 출품한 지장보살도로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고, 연거푸 문화재위원장, 총리상을 받았다. 모두



자수로 3년 6개월만에 완성한 아미타불도

쳤다. 민화의 풍부한 색감과 상징적이고 풍자적인 그림에 마음이 뺏겨 조금만 돈이 모이면 작품들을 사 모으고 그것을 소재로 수를 놓았다. 그렇게 한국 문화의 가치에 눈을 뜨고 보니 그 문화의 뿌리에 불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30대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불교미술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민화를 포함해 그 전까지 해오던 모든 소재를 핑계치고 불화에 빠져 30년이 잘나처럼 흘렀다.

불화를 수놓으며 '이래서야 어찌 종교화를 수놓는 자수가 되겠나' 싶어 비로소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불자가 되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금강경을 독송한다. 자다가도, 혹은 잠님이 일어도 경전 독송을 멈추지 않는다. 한 땀이라도 더 놓아도 작품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자수와 정진이 다르지 않음을 이미 체득한 까닭이다.

대작인 불화 자수를 시작하면서 직접 수틀을 고안하고 수작업에 맞게 밀그림을 만

## 한 땀 한 땀 바늘끝 불보살 나투시네

불화를 소재로 한 자수였다. 부산에서 올라간 무명의 자수가가 작품을 했다 하면 큰 상을 휩쓸자, '최유현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몇 년을 준비해 출품했던 아미타불은 낙선의 쓴 잔을 마시기도 했다.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고 실제로 1차, 2차로 나눠 진행됐던 심사제도 자체가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수틀 앞에 앉아 다음 작품을 구상했을 뿐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상을 안겨준 '만다라'.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그 작품은 제자 3-4명과 함께 4년 정도 걸려 완성한 대작이었다.

왜 하필 불화였을까? "일제 치하 36년을 보내고 한국전쟁 이후 서양 문화가 물밀 듯 밀려오면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어요. 자수의 밀그림도 왜색풍이 주류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통 자수의 맥을 잇는 독창적인 것이 절실했고 그 때, 민화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

들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색상의 수실은 불화의 부위나 표현의 느낌 등에 따라 머리카락 굵기로 나누기도 하고, 두 울, 세 울 혹은 네 울 등으로 피아 사용한다. 연화대의 연꽃잎 하나를 표현하는데도 몇 가지의 수실을 사용해 명암을 주고 밝기를 조절한다.

현재 수틀에서 조성되고 있는 삼세불은 지지사 대웅전 삼세불이다. 폭 1m, 길이 2m 60cm 크기의 약사여래가 4년의 작업 끝에 완성됐고, 3년 6개월 만에 아미타불도 완성됐다. 지금은 주불인 석가모니불이 한창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은 이 시대에 살아 숨 쉴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최 자수장은 "전통의 뿌리 위에 이 시대의 자수가 나와야 진정한 맥을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현 자수장은 "자수가 사라져 가는 이 시대에 후배들이 내 작품을 보고 발심을 하게 된다면 더 할 수 없는 보람이요 기쁨이 될 것"이라며 초창기 작품부터 연대별로 소장해 놓은 작품 100여점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일 전시회를 소망한다. 그 작품들 속에서 자수의 세계에 빠져 잘나기간에 흘러가 버린 한 소녀의 질신년 세월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기에.

글=천희희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불화 자수 30년 최유현 자수장



불화 소재 대작 작가로 유명 명암으로만 처리하는 수묵화 기법 독특 교육도 엄격, 실 피는 일만 반년 배워야 '불교 모르면서 어찌 종교화 수놓는 자수가 되겠나' 싶어 매일 기도하고 경전 독송 "후배들에 발심 기회될 수 있는 전시회 열고파"

학교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  
애드·다피아 <http://ad.buddhania.com>

**머리에 똑똑!!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の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金光植 先生の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 ◇ 초·중·고·대학생·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 ◇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 충청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총요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속 한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역은 책이다.
- ◇ 이원중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 김중호 전 내부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범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